

국 어

해설위원: 기 미 진 교수

본 문제의 소유권 및 판권은 (주)윌비스고시학원에 있습니다. 무단복사 판매 시 저작권법에 의거 경고조치 없이 고발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 반드시 OMR카드에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OMR카드 작성시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총 평>

연도	유형	문법/규범	비문학/독해	문학	어휘/한자
2018년		8(▲1)	7(▲2)	3	2(▽3)
2017년		7	5	3	5

2018 국가직 7급 시험은 지난 4월에 있었던 9급 시험과 마찬가지로 ‘독해의 습격’이 예상되었고, 역시나 그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전반적인 문제의 난이도는 예년의 7급 시험과 유사하였으나 독해와 문학에서 무려 10문제가 출제됨으로써 시험 시간에 쫓겨 당황하거나 실수한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시험장에서 수험생들의 체감 난도는 작년 국가직 7급 시험에 비해 다소 높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 유형은 상단의 분석표와 같이 문법/규범은 작년보다 한 문제가 늘어나 8문제가 출제되었으며, 비문학/독해의 경우 2문제가 늘어나 7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다만 2016-17년 연속으로 5문제씩 출제되어 강세를 보였던 어휘/한자의 경우 비교적 평이한 수준의 한자 성어와 한자 문제가 2문제 출제되어 이로 인한 변별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법/규범의 경우 언어의 기호성, 표준 발음법, 띄어쓰기 등 평소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충실히 공부해 온 수험생들의 경우 큰 어려움 없이 풀 수 있는 수준의 문제들이 출제되었습니다. 그러나 비문학/독해의 경우 지문의 길이가 길지 않은 반면 문제 수가 늘어나고, 지문의 내용을 정확히 분석해야 선지를 소거할 수 있는 까다로운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10월에 있을 지방직 7급 시험에서도 독해의 비중은 결코 낮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지방직 시험의 경우 지문의 길이가 긴 독해 문제들이 출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직 7급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남은 기간 동안 결코 비중이 줄어들지 않는 문법/규범 영역에 대한 대비와 더불어 긴 지문의 독해 문제 풀이 훈련도 충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의 시험에 대한 대비는 다음과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 문법/규범의 경우에는 형태론, 의미론, 한글맞춤법 등 전 범위에 걸쳐서 본인이 준비하는 시험의 기출 변형 문제를 통해 꾸준히 문제풀이 연습을 합니다.
- 비문학/독해 및 문학의 경우에는 문제 유형별(중심내용 찾기, 서술방식 등)로 그리고 시대별로(고려시대, 조선시대 등) 매일 2~3문제씩 풀고 감각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문학 작품의 경우 문제를 풀고 제시된 작품에 대한 분석도 함께 하도록 합니다.
- 어휘/한자의 경우에는 항상 강조하듯이 암기만이 우리의 살길이므로 매일 30분씩 시간을 할당하여 기출 어휘/한자를 중심으로 암기해 나가도록 합니다. 단 순 암기는 머릿속에 남지 않으므로 매번 새로운 자극을 받으면서 암기할 수 있도록 시간, 장소, 분량, 암기 방식을 바꿔 가며 여러분의 뇌가 신선한 자극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험생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이번 시험 결과는 잊고 담대하게 앞으로 남은 시험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 8. 19.

기미진 올림

문 1. 밑줄 친 발음이 표준 발음이 아닌 것은?

- ① 연계[**연계**] 교육
- ② 차례[**차례**] 지내기
- ③ 충의의[**충의의**] 자서
- ④ 논의[**논의**]에 따른 방안

정답 | ②

문제 분석

출제 영역 | 모음의 발음

출제 빈도 | ★★

문제 해설

- ① [O] ‘계’는 본음대로 [계]로 발음하여야 하나, 실제 발음을 고려하여 [계]로 발음함도 허용합니다. 따라서 ‘연계’는 [연계/연계]로 표준 발음이 2개입니다.
- ② [X] ‘예, 레’의 경우에는 [예], [레]로만 발음합니다. 따라서 [차례]로 발음해야 합니다.
- ③ [O] ‘의’가 단어의 첫 음절에 올 경우에는 [의]로만 발음하지만, 단어의 첫 음절이 아닐 경우에는 [의/이]로 발음할 수 있고, ‘의’가 조사로 쓰일 경우에는 [의/에]로 발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충의의/충의에/충의의/충의에] 모두 옳은 발음입니다.
- ④ [O] ‘의’가 단어의 첫 음절이 아닐 경우에는 [의/이]로 발음할 수 있고, 받침 ‘니’는 연음되므로 [논의/논의] 모두 옳은 발음입니다.

문 2. 다음 글을 바탕으로 추론한 생각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소쉬르는 언어를, 기호의 형식에 상응하는 기표(記標)와 기호의 의미에 상응하는 기의(記意)의 기호적 조합이라고 전제한다. 예를 들어 ‘흑연과 점토의 혼합물을 구워 만든 가느다란 심을 속에 넣고, 겉은 나무로 둘러싸서 만든 필기도구’라는 의미를 표시하는 기표는 한국어에서 ‘연필’이다. 그런데 ‘연필’의 기의에 대응되는 영어 기표는 ‘pencil’이다. 각기 다른 기표가 동일한 기의를 표현한 것이다. 소쉬르는 이처럼 하나의 기의가 서로 다른 기표에 대응되는 것을 두고 기호적 관계가 자의적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이러한 자의성은 사회적 약속과 문화적 약속(code)에 따라 조율된다고 보았다.

- ① 표준어로 ‘부추’에 상응하는 표현이 지역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현상에서 기호의 자의성을 엿볼 수 있겠군.
- ② 어떤 개념을 새롭게 표현한 단어가 널리 쓰이려면 그 개념을 쓰는 사회 성원들의 공통된 합의가 필요하겠군.
- ③ 같은 종교를 믿으면서 문화적 약속이 유사한 지역에서는 같은 기표에 대응되는 개념이 비슷할 가능성이 높겠군.
- ④ 사랑이나 진리와 같이 사회 문화적으로 보편적인 개념을 지시하는 각각의 기표들에서 유사한 형식을 도출할 수 있겠군.

정답 | ④

문제 분석

출제 영역 | 언어의 기호적 특성

출제 빈도 | ★★

문제 해설

- ① [O] 소쉬르는 ‘연필’과 ‘pencil’처럼 하나의 기의가 서로 다른 기표에 대응되는 것을 두고 기호적 관계가 자의적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부추’에 상응하는 표현이 지역마다 다른 것은 기호의 자의성에 해당합니다.
- ② [O] 소쉬르는 자의성이 사회적 약속과 문화적 약속에 따라 조율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새롭게 표현한 단어가 널리 쓰이려면 그 개념을 쓰는 사회 성원들의 공통된 합의가 필요하다는 추론은 옳습니다.
- ③ [O] 소쉬르는 자의성이 사회적 약속과 문화적 약속에 따라 조율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같은 종교를 믿으면서 문화적 약속이 유사한 지역에서 같은 기표에 대응되는 개념이 비슷할 가능성이 높다는 추론은 옳습니다.
- ④ [X] 하나의 기의가 서로 다른 기표에 대응되는 것이 언어의 자의성입니다. 따라서 각각의 기표들에서 유사한 형식을 도출할 수 있다는 추론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문 3. 다음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나는 이제 너에게도 슬픔을 주겠다.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을 주겠다.
 겨울밤 거리에서 굴 몇 개 놓고
 살아온 추위와 떨고 있는 할머니에게
 굴 값을 깎으면서 기뻐하던 너를 위하여
 나는 슬픔의 평등한 얼굴을 보여 주겠다.
 내가 어둠 속에서 너를 부를 때
 단 한 번도 평등하게 웃어 주질 않은
 가마니에 덮인 동사자가 다시 일어 죽을 때
 가마니 한 장조차 덮어 주지 않은
 무관심한 너의 사랑을 위해
 흘릴 줄 모르는 너의 눈물을 위해
 나는 이제 너에게도 기다림을 주겠다.
 이 세상에 내리던 함박눈을 멈추겠다.
 보리밭에 내리던 봄눈들을 데리고
 추위 떠는 사람들의 슬픔에게 다녀와서
 눈 그친 눈길을 너와 함께 걷겠다.
 슬픔의 힘에 대한 이야기길 하며
 기다림의 슬픔까지 걸어가겠다.

- 정호승, 「슬픔이 기쁨에게」 -

- ① 의인화 기법을 통해 자연의 가치를 찬미하고 있다.
- ② 소외된 존재의 슬픔이 시상의 거점을 이루고 있다.
- ③ 유사한 종결어의 반복을 통해 화자의 의지가 드러나고 있다.
- ④ 상대에게 말을 건네는 상황을 설정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정답 | ①

문제 분석

출제 영역 | 주요 시 작품이 이해

출제 빈도 | ★★★★★

문제 해설

- ① [X] '의인화'는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에 비기어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슬픔'을 화자로 '기쁨'을 청자로 설정하여 의인화 기법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를 통해 타인의 슬픔에 공감하는 연대의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을 뿐 자연의 가치를 찬미하고 있지 않습니다.
- ② [O] '떨고 있는 할머니', '가마니에 덮인 동사자', '추위에 떠는 사람들' 등 소외된 존재의 슬픔이 시상의 거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 거점(據點): 어떤 활동의 근거가 되는 중요한 지점
- ③ [O] '~겠다'와 같은 유사한 종결어의 반복을 통해 화자의 의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 ④ [O] '나는 이제 너에게도~'와 같이 상대에게 말을 건네는 상황을 설정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문 4. 진행자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진행자: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노키즈 존(No Kids Zone)에 대한 의견을 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한국대학교 홍○○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선 노키즈 존이 정확하게 뭔가요?
 홍교수: 사업체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특정 연령 이하 아이들의 출입을 제한하는 공간을 말합니다.
 진행자: 공공 목적을 가진 곳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지만, 상업 시설에서도 그런가요?
 홍교수: 네. 음식점이나 카페 같은 곳도 해당됩니다. 서비스의 형평성 문제나 불만으로 인해 전체 매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걸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거죠.
 진행자: 아, 어린이 동반 손님을 받다 보면 오히려 다른 손님들을 더 많이 못 받을 수 있죠?
 홍교수: 네. 아무래도 경영을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그런 취지겠죠.
 진행자: 피해가 발생하니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이겠지만 언뜻 특정 인들을 위한 전용 버스 운행과 같이 또 다른 차별의 예를 떠올리게 하네요.
 홍교수: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것도 그 부분입니다. 한국 사회가 시장주의 위주로 성장해 오면서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 같은 부분은 깊이 생각해 오지 못한 것은 아닌가 합니다.
 진행자: 네, 그렇군요. 물론 특정 집단의 차별에 대해 일부 사람들 때문에 피해를 경험했던 분들은 다른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① 상대방의 발언에 적극 동조하며 다음 인터뷰를 기약한다.
- ② 예상되는 반론 가능성을 차단하며 자기의 주장을 관철한다.
- ③ 사례를 언급하며 상대방이 생각을 더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④ 지속적인 질문을 통해 상대방의 태도에 문제가 있음을 환기시킨다.

문제 분석

정답 | ③

출제 영역 | 말하기의 종류

출제 빈도 | ★★

문제 해설

- ① [X] 진행자는 상대방의 발언에 적극 동조하기 보다는 '노키즈 존이 정확하게 뭔가요?', '~ 상업 시설에서도 그런가요?' 등 질문의 형식으로 인터뷰를 이어가고 있으며, 다음 인터뷰를 기약하는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 ② [X] 진행자는 반론 가능성을 차단하기보다는 '물론 특정 집단의 차별에 대해 일부 사람들 때문에 피해를 경험했던 분들은 다른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와 같이 반론 가능성을 제시하였으며, 자기의 주장을 관철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 ③ [O] 진행자는 '언뜻 특정인들을 위한 전용 버스 운행과 같이 또 다른 차별의 예를 떠올리게 하네요.'와 같이 사례를 언급하였으며, 이에 대해 홍 교수는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것도 그 부분입니다. ~ 깊이 생각해 오지 못한 것은 아닌가 합니다.'와 같이 생각을 더 하여 발언하고 있으므로 옳은 선지입니다.
- ④ [X] 진행자는 지속적인 질문을 통해 인터뷰를 이어가고 있으나 이를 통해 상대방의 태도에 문제가 있음을 환기시키고 있지 않습니다.

문 5. 문장 성분의 호응이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 ① 세종이 한글을 만든 것은 모든 한자 사용을 없애고자 한 의도였다.
- ② 우리는 균형 있는 식단 마련과 쾌적한 실내 분위기를 조성하는 노력을 꾸준히 해 왔다.
- ③ 우리 팀에서는 가능한 한 많은 관중이 동원될 수 있도록 모든 홍보 방안을 고려해 왔다.
- ④ 아래에 제시된 두 가지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2000년대 이후 복지 정책에 상당히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정답 | ③

문제 분석

출제 영역 | 문장 성분의 올바른 호응

출제 빈도 | ★★★★★

문제 해설

- ① [X] 주어 '세종이 한글을 만든 것'과 서술어 '의도했다'가 호응하지 않습니다. '세종이 한글을 만든 것은 ~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었다.'와 같이 고쳐 써야 합니다.
- ② [X] 접속 조사 '과'로 연결된 문장과 이 문장들의 수식을 받는 목적어 '노력'의 호응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균형 있는 식단을 마련하고 과학적 실내 분위기를 조성하는 노력을 ~과 같이 고쳐 써야 합니다.
- ③ [O] 주어 '우리 팀에서는', 목적어 '모든 홍보 방안'과 서술어 '고려해 왔다'의 호응이 자연스럽습니다.
- ④ [X] 문장에서 생략된 주어와 호응할 수 있도록 앞 절의 서술어와 뒤 절의 서술어의 형식을 일치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살펴보면, ~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와 같이 고쳐 써야 합니다.

문 6. 밑줄 친 부분의 띄어쓰기가 모두 옳은 것은?

- ① 그 길을 **걸어 온** 사람들도 이 연구에 **참여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
- ② 대책 없이 **쓸 데 없는** 일반 **골라 하니** 저렇게 시간을 낭비할 수밖에 없다.
- ③ 이 기계가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 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수 없었다.
- ④ 예기치 못했던 불미스러운 사고가 **있었던바** 재발 방지책을 **찾아**야 **한다**.

정답 | ④

문제 분석

출제 영역 | 띄어쓰기
출제 빈도 | ★★★★★

문제 해설

- ① [X] '걸어오다'는 한 단어이므로 '걸어온'과 같이 붙여 써야 합니다. '데'는 '알'이나 '것'의 뜻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므로 '참여하는 데'와 같이 띄어 써야 합니다.
- ② [X] '쓸데없다'는 한 단어이므로 활용형인 '쓸데없는'은 붙여 써야 합니다. '골라 하니'는 '골라(서)' 하다와 같이 두 용언 사이에 다른 요소가 결합될 수 있는 '본용언과 본용언'의 구조이므로 띄어 씁니다.
- ③ [X] '자'는 시간의 경과를 의미할 경우에만 의존 명사로 앞말과 띄어 씁니다. '는'은 막연한 의문이 있는 채로 그것을 뒤 절의 사실이나 판단과 관련시키는 데 쓰는 연결 어미이므로 '하는지'와 같이 붙여 써야 합니다. '알아보다'는 한 단어이므로 활용형인 '알아볼'은 붙여 씁니다.
- ④ [O] '-나'는 뒤 절에서 어떤 사실을 말하기 위하여 그 사실이 있게 된 것과 관련된 과거의 어떤 상황을 미리 제시하는 데 쓰는 연결 어미이므로 앞말에 붙여 씁니다. '찾아야 한다'는 '찾다' 뒤에 '-어야 하다' 구성으로 쓰여 앞말이 뜻하는 행동을 하거나 앞말이 뜻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 필요함을 나타내는 보조 동사 '하다'가 결합한 구조이므로 띄어 씁니다.

문 7. 밑줄 친 말의 문맥적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 나는 우리 회사의 장래를 너에게 **결었다**.
- ① 이 작가는 이번 작품에 생애를 **결었다**.
- ② 우리나라는 첨단 산업에 승부를 **결었다**.
- ③ 마지막 전투에 주저 없이 목숨을 **결었다**.
- ④ 그는 친구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직위를 **결었다**.

정답 | ②

문제 분석

출제 영역 | 단어의 문맥적 의미
출제 빈도 | ★★★★★

문제 해설

- 밑줄 친 말의 '결다'는 '앞으로의 일에 대한 희망 따위를 품거나 기대하다'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 ①, ③, ④ [X] '목숨, 명예 따위를 담보로 삼거나 희생할 각오를 하다'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 ② [O] '앞으로의 일에 대한 희망 따위를 품거나 기대하다'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문 8. 밑줄 친 부분의 사례로 적절한 것은?

한국어의 피동 표현 중 '-어/아지다'에 의한 피동이 있다. 이것은 연결 어미 '-어/아'에 보조 동사 '지다'가 결합된 통사적 구성으로 통사적 피동이라 부르기도 한다. 그런데 '-어/아지다'가 피동의 의미보다는 '-게 되다'와 비슷한 의미를 가져 어떠어떠한 상태로 된다는 **과정화**의 의미가 더 강할 때가 있다.

- ① 이 책이 잘 읽혀진다.
- ② 방에 우유가 쏟아졌다.
- ③ 그 가게에 잘 가지지 않아요.
- ④ 이 연필은 글씨가 잘 써진다.

정답 | ③

문제 분석

출제 영역 | 사동사와 피동사의 구별
출제 빈도 | ★★

문제 해설

- '-어/아지다'를 '-게 되다'로 바꾸어 보고 피동의 의미보다 '어떠어떠한 상태로 된다'는 과정화의 의미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① [X] '이 책이 잘 읽혀진다'를 '이 책이 잘 읽히게 된다'로 바꾸었을 때 과정화의 의미보다 피동의 의미가 강합니다. 또한 '읽혀진다'는 '읽다'에 피동 접미사 '-히'와 피동의 보조 용언 '-어지다'가 결합된 이중 피동으로 '읽히다'로 고쳐 쓰는 것이 적절합니다.
- ② [X] '방에 우유가 쏟아졌다'를 '방에 우유가 쏟아지게 된다'로 바꾸었을 때 과정화의 의미보다 피동의 의미가 강합니다.
- ③ [O] '그 가게에 잘 가지지 않아요'를 '그 가게에 잘 가게 되지 않아요'로 바꾸면 '그 가게에 잘 가지 않는 상태가 된다'는 과정화의 의미가 강해짐을 알 수 있습니다.
- ④ [X] '이 연필은 글씨가 잘 써진다'를 '이 연필은 글씨가 잘 써지게 된다'로 바꾸었을 때 과정화의 의미보다 피동의 의미가 강합니다.

문 9. ㉠에 해당하는 것과 ㉡에 해당하는 것을 문맥적 의미를 고려하여 짝 지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내 집에 당장 쓰러져 가는 행랑채가 세 칸이나 되어 할 수 없이 전부 수리하였다. 그중 두 칸은 이전 장마에 비가 새면서 기울어진 지 오래된 것을 알고도 이리저리 미루고 수리하지 못한 것이고 한 칸은 한 번 비가 새자 곧 기와를 바꿨던 것이다. 이번 수리할 때에 기울어진 지 오래였던 두 칸은 들보와 서까래들이 다 썩어서 다시 쓰지 못하게 되어 수리하는 비용도 더 들었으나, 비가 한 번 새었던 한 칸은 재목이 다 성하여 다시 썼기 때문에 비용도 덜 들었다. 나는 ㉠ **이 경험**을 통해 ㉡ **깨달음**을 얻었다. 이러한 것은 사람에게도 있는 일이다. 자기 과오를 알고 곧 고치지 않으면 나무가 썩어서 다시 쓰지 못하는 것과 같고, 과오를 알고 고치기를 서슴지 않으면 다시 착한 사람이 되기 어렵지 않으니 집 재목을 다시 쓰는 이로움과 같은 것이다. 다만 한 사람만이 아니라 한 나라의 정치도 또한 이와 같아서 백성의 이익을 침해하는 일이 심하여도 그럭저럭 지내고 고치지 않다가 백성이 떠나가고 나라가 위태롭게 된 뒤에는 갑자기 고치려고 해도 바로잡기가 대단히 어려우니 삼가지 않아서야 되겠는가?

— 이규보, 「이육설」 —

㉠

- ① 기와를 바꾸다 과오를 고치다
- ② 미루고 수리하지 않다 과오를 알고도 곧 고치지 않다
- ③ 들보와 서까래가 다 썩다 나라를 바로잡을 방도가 없다
- ④ 비가 새서 기울어진 상태 자기 과오

㉡

정답 | ③

문제 분석

출제 영역 | 고전 수필
출제 빈도 | ★★

문제 해설

- 자신의 '경험'과 이를 통한 '깨달음'을 찾으면 됩니다. 제시문은 이규보의 <이육설>로 고전 수필에 해당하며, '잘못을 미리 알고 그것을 고쳐 나가는 자세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① [O] '기와를 바꾸다'는 경험에 해당하고 '과오를 고치다'는 이로 인한 깨달음에 해당합니다.
- ② [O] '미루고 수리하지 않다'는 경험에 해당하고 '과오를 알고도 곧 고치지 않다'는 이로 인한 깨달음에 해당합니다.
- ③ [X] '들보와 서까래가 다 썩다'는 경험에 해당하지만 '나라를 바로잡을 방도가 없다'는 깨달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한 깨달음은 '나라를 바로잡기가 대단히 어렵다'가 적절합니다.

④ [O] '비가 와서 기울어진 상태'는 경험에 해당하고 '자기 과오'는 깨달음에 해당합니다.

문 10. ㉠ ~ ㉢의 상황에 어울리는 한자성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가 사는 집 이름을 사우재(四友齋)라고 하였는데, 그것은 내가 벗하는 이가 셋이고 거기에 또 내가 끼니, 합하여 넷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세 벗은 오늘날 생존해 있는 선비가 아니고 지금은 세상에 없는 옛 선비들이다. 나는 원래 세상일에 관심이 없는데다가 또 ㉠ **성격이 제멋대로여서 세상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도 못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꾸짖고 때를 지어 배척하므로, ㉡ **집에는 찾아오는 이가 없고 밖에 나가도 찾아갈 만한 곳이 없다**.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탄식했다.

“벗은 오륜(五倫) 가운데 하나를 차지하는데 나만 홀로 벗이 없으니 어찌 심히 부끄러운 일이 아니겠는가?”

벼슬길에서 물러나 생각해 보았다. ㉢ **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더럽다고 사귀려 들지 않으니** 어디서 벗을 찾을 것인가. 할 수 없이 ㉣ **옛 사람들 중에서 사귄 만한 이를 가려내서 벗으로 삼으리라고 마음먹었다**.

- ① ㉠: 傍若無人 ② ㉡: 左顧右盼
③ ㉢: 不恥下問 ④ ㉣: 後生可畏

정답 | ①

문제 분석

출제 영역 | 한자 성어

출제 빈도 | ★★★★★

문제 해설

- ① [O] 傍若無人(결 방, 갈을 약, 없을 무, 사람 인)은 '결에 사람이 없는 것처럼 아무 거리낌 없이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는 태도가 있음'을 의미하므로 '㉠ 성격이 제멋대로여서 세상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도 못한다.'의 상황에 어울립니다.
② [X] 左顧右盼(왼 좌, 돌아볼 고, 오른 우, 애꾸눈 먼)은 '이쪽저쪽을 돌아본다'는 뜻으로, 앞뒤를 재고 망설임을 이르는 말입니다.
③ [X] 不恥下問(아닐 불, 부끄러울 치, 아래 하, 물음 문)은 '손아랫사람이나 지위나 학식이 자기만 못한 사람에게 모르는 것을 묻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을 이르는 말입니다.
④ [X] 後生可畏(뒤 후, 날 생, 옳을 가, 두려워할 외)는 '젊은 후학이 학문을 닦음에 따라 큰 인물이 될 수 있으므로 두렵다'는 말입니다.

문 11. 다음 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범직 용의자의 용모를 파악하기 위해 눈, 코, 입 등 얼굴 각 부분의 인상을 조립하면 하나의 얼굴 사진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만들어진 사진을 몽타주 사진이라고 부른다. 몽타주는 '조립'을 의미하는 프랑스어 이므로 몽타주 사진을 '조립된 사진'이라고 바꿔 부를 수 있다. 이처럼 몽타주에서는 각각의 이미지들이 결합되어 새로운 인상을 창조한다. 예술가들은 이러한 몽타주의 효과를 다양한 예술적 시도를 위해 사용해 왔다. 몽타주 효과는 특히 영화에서 자주 응용되며, 몽타주에 관한 이론은 영화 이론의 하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 이유는 영화 자체가 몽타주에 의해 성립되는 예술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영화에서는 따로따로 찍은 장면을 이어 붙이는 조립의 과정이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영화에서 슬픈 장면 뒤에 등장하는 무표정한 얼굴은 슬픔을 억누르고 있는 얼굴처럼 느껴진다. 그런데 같은 무표정한 얼굴이라 해도 앞에 어떤 장면을 배치하는가에 따라 그 얼굴이 드러내는 감정은 얼마든지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이러한 몽타주를 통해 영화 특유의 시간 감각이 발생한다. 이를테면 우리가 영화를 볼 때 영화 속 침묵이 유난히 더 길게 느껴진다면, 이는 영화의 장면 조립을 통해 창조된 새로운 시간 감각 때문이다. 영화 이론가들은 이러한 영화 특유의 세계를 다루는 이론, 즉 조립에 의해 탄생하는 영화의 세계에 관한 이론을 몽타주 이론이라고 부른다.

- ① 몽타주 효과는 이미지들의 결합으로 생겨나는 인상의 새로움을 의미한다.
② 동일한 장면이라 해도 그 배치에 따라 의미가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
③ 몽타주 이론은 이어 붙인 장면들을 통해 창조되는 영화의 시간 감각을 다룬다.
④ 표정 연기의 실감을 극대화하여 영상미를 창출함으로써 몽타주의 효과가 생겨난다.

정답 | ④

문제 분석

출제 영역 | 내용 일치 여부 파악하기

출제 빈도 | ★★★★★

문제 해설

- ① [O] '이처럼 몽타주에서는 각각의 이미지들이 결합되어 새로운 인상을 창조한다.'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② [O] '그런데 같은 무표정한 얼굴이라 해도 앞에 어떤 장면을 배치하는가에 따라 그 얼굴이 드러내는 감정은 얼마든지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③ [O] '이러한 몽타주를 통해 영화 특유의 시간 감각이 발생한다.'와 '영화 이론가들은 이러한 영화 특유의 세계를 다루는 이론, 즉 조립에 의해 탄생하는 영화의 세계에 관한 이론을 몽타주 이론이라고 부른다.'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④ [X] 몽타주 효과는 이미지들의 결합으로 생겨나는 인상의 새로움을 의미합니다. 표정 연기의 실감을 극대화하여 영상미를 창출하는 것과 무관합니다.

문 12. 다음은 선조 28년 7월에 사헌부에서 올린 보고문이다. 이를 통해 추론할 수 있는 사헌부의 견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우리나라는 여러 대 태평을 누리는 동안 문물은 융성하고 교화의 도구는 남김없이 모두 갖추어졌습니다. 선비들은 예법으로 자신을 단속했고, 백성들은 충과 효에 스스로 힘썼습니다. 관혼상제의 법도는 옛날보다 못하지 않았고, 임금을 버리고 아버지를 무시하는 말은 세상에 용납되지 않았습니

다. 그러므로 효도로 다스리는 세상에서 윤리에 죄를 얻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난리[임진왜란]를 겪은 뒤로는 금방(禁防)이 크게 무너져 불온한 마음을 품는가 하면, 법도에 벗어나는 말을 외치기도 합니다. 오직 제 몸의 우환만 알고, 부모의 기른 은혜를 까맣게 잊은 나머지 저 들판과 진필에 매장되지 못한 시신이 버려져 있는가 하면, 상복을 입은 자가 고깃국을 먹는 것을 가리지 않았습니

다. 식견이 있는 사람도 이렇게 하거늘, 무지한 이들이야 어떠하겠습니까? 효자의 집안에서 충신을 찾을 수 있는 법인데, 그 아버지를 이처럼 박대한다면 의리를 따라 나라를 위해 죽는 사람은 눈을 씻고 보아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 ① 효를 실천하지 않는 이가 나라를 위해 희생할 리 없다.
② 시신을 매장하지 않는 장례 방식이 임진왜란 이후 생겨났다.
③ 전란 이후에 사람들 사이에서 중요한 법도가 무시되고 있다.
④ 무지한 이들은 식견 있는 이들에 비해 윤리적 과오에 더 취약하다.

정답 | ②

문제 분석

출제 영역 | 내용 일치 여부 파악하기

출제 빈도 | ★★★★★

문제 해설

- ① [O] '효자의 집안에서 충신을 찾을 수 있는 법인데, 그 아버지를 이처럼 박대한다면 의리를 따라 나라를 위해 죽는 사람은 눈을 씻고 보아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② [X] '난리[임진왜란]를 겪은 뒤로는 금방(禁防)이 크게 무너져 불온한 마음을 품는가 하면, ~ 부모의 기른 은혜를 까맣게 잊은 나머지 저 들판과 진필에 매장되지 못한 시신이 버려져 있는가 하면'을 통해 시신을 매장하지 않는 장례 방식이 생겨난 것이 아니라 장례를 치르지 않고 시신을 버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③ [O] '난리[임진왜란]를 겪은 뒤로는 금방(禁防)이 크게 무너져 불온한 마음을 품는가 하면, 법도에 벗어나는 말을 외치기도 합니다.'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④ [O] '식견이 있는 사람도 이렇게 하거늘, 무지한 이들이야 어떠하겠습니까?'를 통해 사헌부가 무지한 이들은 식견 있는 이들에 비해 윤리적 과오에 더 취약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문 13. 다음 글에서 추론할 수 있는 정약용의 생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산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공직자들의 절용(節用), 즉 아껴 쓰기를 강조했다. 다산이 말한 절용은 듣기에는 매우 간단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실천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자기 돈은 절용하기 쉽지만 정부 돈은 함부로 쓰기 십상이다. 또한 정책 과정에서 온갖 비리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렇기에 절용은 공직자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다산은 유배지에서 아들에게 “내가 오랫동안 귀양 살면서 너희에게 유산으로 남겨 줄 재산이 없다. 다만 너희에게 글자 두 자를 유산으로 남겨 준다. 하나는 근(勤)이요, 하나는 검(儉)이다. 너희가 근검 두 글자를 제대로 실천하려고 하면 논 100마지기 200마지기보다 좋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청렴해야 자애로울 수 있고 자애로운 것이야말로 백성을 사랑하는 것이니, 다산은 백성을 통치하려면 먼저 절용에 힘쓰라고 말한 것이다. 다산이 말한 청심(淸心)은 맑은 마음, 깨끗한 마음을 의미하는데 이는 공직자의 기본이다. 공직자는 대가성이 없고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있다 해서 적은 돈이라도 받아서는 안 된다. 다산은 청렴이 천하의 큰 장사라 말했다. 청렴이야말로 가장 큰 이익이 남는 일임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다산은 청렴한 사람이 진짜 욕심쟁이라고 했다. 최고의 지위까지 오르려는 공직자는 청렴해야만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다. 다산은 사람들이 청렴하지 못한 이유를 지혜가 모자란 데서 찾았다. 다산의 청렴 사상은 ‘청렴한 사람은 청렴함을 편안하게 여기고, 지혜로운 사람은 청렴함을 이롭게 여긴다.’(廉者安廉 知者利廉)는 말로 요약된다. 공자는 목표가 인(仁)인 반면 다산은 목표가 청렴이었다. 인은 너무 높은 성현의 이야기이므로 일반인이 인의 경지에 이르기 힘들니 한 단계 낮추어 청렴을 이야기한 것이다.

- ① 공직자들은 금품과 선물을 법으로 정한 한도 내에서 주고받아야 한다.
- ② 관리들이 청렴하고 자애로우면 백성들이 인을 이룰 수 있게 된다.
- ③ 자손에게 물질적 재산을 남겨 주는 공직자는 청렴하다고 할 수 없다.
- ④ 지혜로운 관리리는 청렴함을 통해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정답 | ④

문제 분석

출제 영역 | 주제 및 중심 내용 파악하기

출제 빈도 | ★★★★★

문제 해설

- ① [X] ‘공직자는 대가성이 없고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있다 해서 적은 돈이라도 받아서는 안 된다.’를 통해 틀린 선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 ② [X] ‘청렴해야 재물로써 수 있고 재물로써 것이야말로 백성을 사랑하는 것이니, 다산은 백성을 통치하려면 먼저 절용에 힘쓰라고 말한 것이다.’를 통해 관리들이 청렴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를 통해 백성들이 이를 얻을 수 있게 되지는 알 수 없습니다.
- ③ [X] 다산은 유배지에서 아들에게 “내가 오랫동안 귀양 살면서 너희에게 유산으로 남겨 줄 재산이 없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긴 했지만 자손에게 물질적 재산을 남겨 주는 공직자를 청렴하지 않다고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 ④ [O] ‘청렴이야말로 가장 큰 이익이 남는 일임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다산은 청렴한 사람이 진짜 욕심쟁이라고 했다. 최고의 지위까지 오르려는 공직자는 청렴해야만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다.’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문 14. 다음 시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셋셋 常 평홀 平 통홀 通 보뷔 寶宇
 구멍은 네모지고 四面이 둥그러서 석터를 구으려 간 곳마듯 반기는고나
 엇더타 조고만 金조각을 두창이 닛토거니 나느 아니 조해라

- ① 조선 후기의 참여한 신분 갈등이 제재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 ② 의인화된 제재와 대화하는 형식을 통해 주제를 표현하고 있다.
- ③ 제재에 대한 일반적 반응과 시적 화자의 반응이 대조되고 있다.
- ④ 화자의 심화된 내적 갈등을 보여 주기 위해 대립적 성격의 소재를 활용하고 있다.

정답 | ③

문제 분석

출제 영역 | 시조

출제 빈도 | ★★★★★

문제 해설

이 작품은 ‘상평통보(常平通寶)’라는 엽전을 노래한 18세기 사설시조입니다. 굴러가는 곳마다 반기지만 누구나 차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조그마한 쇠불이**를 두고 머리가 터

저 상처가 나도록 다툼다고 하면서 돈을 벌기 위하여 악착스럽게 경쟁하는 세태를 풍자 하였습니다.

- ① [X] 제재는 떳떳하고 평등하게 통용되는 ‘상평통보’입니다. 그러나 이를 통해 조선 후기의 침예한 신분 갈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않습니다.
- ② [X] ‘업전지 굴러 가는 것’은 무생물을 생물이니 표현하는 ‘활유법’이 사용되었으며, 화자는 제재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인화된 제재와 대화하는 형식을 통해 주제를 표현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 ③ [O] 화자는 제재인 업전이 굴러간 곳마다 사람들이 반기지만 자신은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재에 대한 일반적 반응과 시적 화자의 반응이 대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④ [X] 화자의 심화된 내적 갈등은 나와 있지 않으며, 제재는 ‘상평통보’ 하나일 뿐 대립적 성격의 소재를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대어 풀이]

평등할 상 평등할 평 통할 통 보배 보
구멍은 네모지고 사면이 둥글어서 맥때굴 굴러간 곳마다 반기는구나
엇더냐 조그마한 쇠불이를 두고 머리가 터져 상처가 나도록 닦으니 나는 아니 좋구나

문 15. ㉠ ~ ㉢ 중 한자의 표기가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프레젠테이션이란 여러 사람 앞에서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 또는 어떤 사실에 대해서 시각 자료를 활용하여 ㉠陳述하는 말하기를 가리킨다. 프레젠테이션은 조사한 내용을 ㉡說明하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보고하는 등 정보 공유의 효과적인 수단으로 널리 ㉢使用되고 있다. 최근 들어 핵심적인 정보를 짧은 시간 내에 효과적으로 ㉣制視하는 프레젠테이션 능력이 더욱 중시되고 있다.

- [illegible]

정답 | ②

문제 분석

출제 영역 | 기타 한자 어휘

출제 빈도 | ★★★★★

문제 해설

- ㉠ [O] '일이나 상황에 대하여 자세하게 이야기함'은 '陳述(베를 진, 펴 술)'을 씁니다.
 ㉡ [X] '어떤 일이나 대상의 내용을 살펴대면서 잘 알 수 있도록 밝혀 말함'은 '說明(말씀 설, 발명)'을 써야 합니다. ※說 베를 설
 ㉢ [C] '일정한 목적이나 기능에 맞게 씌는' '使用(하여금 사, 쓸 용)'을 씁니다.
 ㉣ [X] '어떠한 의사를 말이나 글로 나타내어 보임'은 '提示(글 제, 보일 시)'를 써야 합니다. ※ 절 제제할 제/지을 제, 視 볼 시
 따라서 정답은 ㉡ ㉠, ㉢입니다.

문 16. 밑줄 친 부분을 고유어로 바꿀 때 적절한 것은?

- 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 바라는
- ② 우리는 연 3 %의 연체 **이자**를 납부합니다. → 에누리를
- ③ 부서의 현재 상황을 **상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아려
- ④ 오늘 경기가 취소되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알려 주시기

정답 | ①

문제 분석

출제 영역 | 국어 순화

출제 빈도 | ★★★★★

문제 해설

제시된 고유어로 바꾸어 보아 원래 문장의 의미가 유지되는지 확인합니다.

- ① [O] ‘소기(所期)’는 주로 ‘소기의’ 꼴로 쓰여 ‘기대한 바’를 의미하므로 ‘바라는’으로 바뀌 쓸 수 있습니다.
- ② [X] ‘이자(利子)’는 ‘남에게 돈을 빌려 쓴 대가로 치르는 일정한 비율의 돈’을 의미합니다. ‘길비’, ‘변리’로 순화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애누리’는 ‘물건값을 받을 값보다 더 많이 부르는 일. 또는 그 물건값을 의미하므로 바뀌 쓰기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 ③ [X] ‘상신하다(上申-)’는 ‘윗사람이나 관청 등에 일에 대한 의견이나 사정 따위를 말이나 글로 보고하다’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헤아리다’는 ‘짐작하여 가능하거나 미루어 생각하다’를 의미하므로 바뀌 쓰기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 ④ [X] ‘양지하다(諒知-)’는 ‘살피어 알다’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알려 주다’는 바뀌 쓰기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문 17. (가), (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내 개인적인 체험에 불과한 일이라는 하지만, 저 혹독한 6·25의 경험 속의 공포의 전깃불(다른 곳에서 그것에 대해 쓴 일이 있다), 그 비정한 전깃불빛 앞에 나는 도대체 어떤 변신이나 사라짐이 가능했을 것인가. 앞에 선 사람의 정체를 감춘 채 전깃불은 일방적으로 '너는 누구 편이냐'고 운명을 판가름할 대답을 강요한다. 그 앞에선 물론 어떤 변신도 사라짐도 불가능하다. 대답은 불가피하다. 그리고 그 대답이 빛나면 편을 잘못 맞췄을 땐 그 당장에 제 목숨이 달아난다. 불빛 뒤의 상대방이 어느 편인지를 알면 대답은 간단하다. 그러나 이쪽에선 그것을 알 수 없다. 그것을 알 수 없으므로 상대방을 기준으로 안전한 대답을 선택할 수가 없다. 길은 다만 한 가지. 그 대답은 자기 자신의 진실을 근거로 한 선택이 될 수밖에 없다. 그것은 바로 제 목숨을 건 자기 진실의 드러냄인 것이다. 그 밖의 다른 길은 없는 것이다.

— 이청준, 「전깃불 앞의 방백」 —

(나) 한데 요즘 나는 나의 소설 작업 중에도 가끔 그 비슷한 느낌을 경험하곤 한다. 내가 소설을 쓰고 있는 것이 마치 그 얼굴이 보이지 않은 전깃불 앞에서 일방적으로 나의 진술만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말이다. 문학 행위란 어떻게 보면 가장 성실한 작가의 자기 진술이라고 할 수 있다. 한데 나는 지금 어떤 전깃불 아래서 나의 진술을 행하고 있는지 때때로 엄청난 공포감을 느낄 때가 많다는 말이다. 지금 당신 같은 질문을 받게 될 때가 바로 그렇다…….

— 이청준, 「소문의 벽」 —

- ① (나)와 달리 (가)는, 경험에서 파생된 상징적 장치를 적용하여 사태의 의미를 도출하고 있다.
- ② (가)와 달리 (나)는, 이념적 대립에 의해 자유를 억압당하는 인물의 고통을 낱말이 진술하고 있다.
- ③ (가)와 (나)는, 상호적 소통의 여지가 가로막힌 상황의 공포를 다룸으로써 유사한 의미를 공유하고 있다.
- ④ (가)와 (나)는, 고립된 채 두려움에 떠는 인물의 행동을 극화함으로써 공통된 주제 의식을 제시하고 있다.

정답 | ③

문제 분석

출제 영역 | 주요 소설 작품의 이해

출제 빈도 | ★★★★★

문제 해설

- ① [X] (가)와 (나)는 모두 경험에서 파생된 상징적 장치(전깃불)를 적용하여 사태의 의미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 ② [X] (나)와 아닌 (가)에서 이념적 대립에 의해 자유를 억압당하는 인물의 고통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 ③ [O] (가)는 전깃불 앞에서 남한과 북한의 이념적 대립에 따라 누구의 편인지 물어보는 것에 대한 공포를 (나)는 소설을 쓰는 행위가 마치 전깃불 아래서 진술을 행하고 있는 것과 같은 공포감을 느끼게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와 (나)는 상호적 소통의 여지가 가로막힌 일방적인 상황에서의 공포를 다룸으로써 유사한 의미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 ④ [X] (가)와 (나)는 등장인물인 '나'가 자신의 경험에서 비롯된 생각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물의 행동을 극화함으로써 공통된 주제 의식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극화(劇化): 사건이나 소설 따위를 극의 형식으로 만들.

문 18.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들은 특정 소리는 머릿속에 존재하는 어휘 목록 속에서 어떻게 의도된 단어에 접속하여 그 의미만을 활성화할 수 있는 것일까? 즉 우리가 어떤 단어를 들었을 때, 그 단어와 다른 모든 단어들이 구별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도 어떻게 해당 단어의 의미가 정확하게 활성화될 수 있을까? 마슬렌-윌슨(Marslen-Wilson)은 어떤 단어를 듣고 인식하는 데 필요한 조건에 관련된 실험을 진행했다. 그는 실험을 통해 앞부분이 같은 다른 단어들과 구별되는 지점까지 들어야 비로소 어떤 단어가 인식된다는 것을 알아냈다. 예를 들어 'slander'는 /d/를 들었을 때 비로소 앞부분이 같은 다른 단어들과 확실하게 구별되며, 이 지점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slant'와 구별되지 않는다. 여기서 청각 체계로 들어온 소리가 머릿속 어휘 목록의 해당 항목에 접속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활성화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러한 과정은 금고를 열기 위한 숫자 조합의 원리와 유사하다. 숫자 조합 자물쇠의 회전판을 올바른 순서로 회전시킬 때, 모든 숫자를 끝까지 회전시키지 않고도 맞아떨어질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특정 소리 연속체를 요구하는 신경 회로들은 진행 중인(하지만 아직 완전히 진행되지 않은) 소리의 연속체로 인해 활성화될 수 있다. 그에 따르면 /slan/은 'slander'와 'slant'에 관련되는 신경 회로들 전부를 활성화할 것이다.

- ① 머릿속에 저장된 단어들에, 청각 체계로 들어온 음성 신호가 접속하여 의미가 활성화된다.
- ② 'slander'와 'slant'의 의미를 서로 구별하기 위해서는 각 단어의 발음을 끝까지 들어야 한다.
- ③ 어떤 단어를 머릿속 어휘 목록에서 선택하여 발화하는 과정은 숫자 조합 자물쇠의 원리로 설명할 수 있다.
- ④ 특정 단어와 관련되는 신경 회로는 그 단어와 소리가 유사한 다른 단어들이 구별될 때까지 활성화되지 않는다.

정답 | ①

문제 분석

출제 영역 | 내용 일치 여부 파악하기

출제 빈도 | ★★★★★

문제 해설

- ① [O] 「우리가 들은 특정 소리는 머릿속에 존재하는 어휘 목록 속에서 어떻게 의도된 단어에 접속하여 그 의미만을 활성화할 수 있는 것일까?」에서 선지의 내용이 전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여기서 청각 체계로 들어온 소리가 머릿속 어휘 목록의 해당 항목에 접속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활성화한다는 점이 중요하다」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 ② [X] 「“slander”는 /d/를 들었을 때 비로소 앞부분이 같은 다른 단어들과 확실하게 구별되며, 이 지점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slant’와 구별되지 않는다.”를 통해 단어의 발음의 끝자기가 아니라 앞부분이 같은 다른 단어들과 구별되는 지점까지 들으면 의미를 구별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③ [X] 「여기서 청각 체계로 들어온 소리가 머릿속 어휘 목록의 해당 항목에 접속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활성화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러한 과정은 금고를 열기 위한 숫자 조합의 원리와 유사하다.’를 통해 숫자 조합 자물쇠의 원리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발화하는 과정’이 아니라 ‘다른 단어들과 구별해 내는 과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 ④ [X] 「/slan/은 ‘slander’와 ‘slant’에 관련되는 신경 회로들 전부를 활성화할 것이다.”를 통해 특정 단어와 관련되는 신경 회로는 그 단어와 소리가 유사한 다른 단어들이 구별되기 전부터 활성화됨을 알 수 있습니다.

문 19.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千世 우희 미리 定 漢水 北에 ㉠ 累仁關國 ㉡ 卜年이 ㉢ 업스시니
聖神이 니수샤도 ㉣ 敬天勤民 ㉤ 샤샤 더욱 구드시리이다
㉥ 衿금한 ㉦ 아락쇼셔 洛水에 山行 가 이셔 하나닐 미드니잇가

- ① ㉠에서 ‘-샤’는 주체 높임 선어말어미에 연결어미 ‘-아’가 결합된 형태로, 현대국어의 ‘-시어’에 대응된다.
- ② ㉣에서 ‘-샤’는 선행하는 활용형과 결합하여 그 뜻을 강조하는 조사로, 현대국어의 ‘-서’에 대응된다.
- ③ ㉥에서 ‘-하’는 높임을 받는 대상에 쓰는 호격 조사로, 현대국어의 ‘-이시여’에 대응된다.
- ④ ㉦에서 ‘-쇼셔’는 청자를 높여 주며 명령을 나타내는 종결어미로, 현대국어의 ‘-십시오’에 대응된다.

정답 | ②

문제 분석

출제 영역 | 중세 국어의 높임법

출제 빈도 | ★★

문제 해설

- ① [O] ㉠에서 ‘샤는 주체 높임 선어말어미에 연결어미 ‘야가 결합된 형태로, 동사, 형용사 어간 뒤에 붙으며 현대국어의 ‘시아’에 대응됩니다. (예: 海東 六龍이 닥샤 일마다 天福이시니)
- ② [X] ㉡ ‘敬天勤民하샤샤’는 ‘경천근민하시아야’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샤샤’는 받침 없는 동사, 형용사 어간 뒤에 붙으며 ‘시아야’를 의미하는 어미입니다. ‘샤’는 ‘시아’를, ‘샤’는 동사, 형용사 어간 뒤에 붙어 ‘야’를 의미하는 어미입니다(예: 道理 일워샤 도 라오리라 하시고). 참고로 ‘샤’는 받침 없는 체언류나 조사, 어미 뒤에 붙는 조사 ‘야’로 쓰이기도 합니다. (예: 過劫에 苦行하샤 이제샤 일우산들)
※ 경천근민(敬天勤民):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을 위하여 부지런히 일함.
- ③ [O] ㉢에서 ‘하는 높임을 받는 대상에 쓰는 호격 조사로, 존칭 체언류에 붙어 ‘시아. 이시아’를 의미하며 현대 국어의 ‘이시아’에 대응됩니다. (예: 世尊하 아뢰나 이 經을 디녀 닐거 외오며)
- ④ [O] ㉣에서 ‘쇼샤’는 청자를 높여 주며 명령을 나타내는 종결어미로, 동사 어간이나 어미 뒤에 붙어 하쇼샤할 자리에 쓰여, 현대국어의 ‘십시오’에 대응됩니다.

문 20. 다음 글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검증되지 않은 지식은 인간의 의식 공간에서 믿음의 체계를 구성한다. 믿음의 체계는 허구를 기초로 해서라도 성립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사실의 체계와 구별된다. 물론 이 말은 스스로 허구라고 믿으면서도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의식 공간에서 믿음의 체계를 구성한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다. 어떤 사람이 허구임을 인정한 것이라면 이는 그 사람의 의식 공간에서는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의 의식 공간에서 구성된 사실의 체계에 동원된 지식이나 믿음의 체계에 동원된 지식이나 모두 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사실이 아니면 안 된다. 믿음의 체계를 구성하는 데 사용된 지식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체계를 구성해 갖추고 있는 사람에게 그것은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지식이어야 하는 것이다. 일단 사실임이 전제되지 않는 것은 한 사람의 의식 공간에서 일정한 영역을 확보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하나의 지식을 놓고 볼 때는 그것이 믿음의 체계를 구성하는 검증되지 않은 지식인지 아니면 사실의 체계를 구성하는 검증된 지식인지 구별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이 총체적으로 작용해서 이루어지는 인간의 의식 세계는 저러한 두 가지 체계가 서로 분명하게 구별되지 않고 뒤엉켜 있다. 그러므로 의식 세계에서 사실의 체계와 믿음의 체계를 확실하게 구분해 낼 수는 없을 것이다.

- ① 믿음의 체계는 검증되지 않은 지식이 인간의 의식 공간에 구성한 것이다.
- ② 어떤 이가 믿음의 체계에 포함시킨 지식이라면 그 지식은 그가 사실로 수긍한 것이다.
- ③ 검증된 지식과 검증되지 않은 지식의 변별이 인간의 의식 세계에서는 명확하지 않다.
- ④ 검증되지 않은 지식이라도 한 사람에게 사실로 인정되면 사실의 체계를 구성할 수 있다.

정답 | ④

문제 분석

출제 영역 | 내용 일치 여부 파악하기

출제 빈도 | ★★★★★

문제 해설

- ① [O] ‘검증되지 않은 지식은 인간의 의식 공간에서 믿음의 체계를 구성한다’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 ② [O] ‘믿음의 체계를 구성하는 데 사용된 지식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체계를 구성해 갖추고 있는 사람에게 그것은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지식이어야 하는 것이다’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 ③ [O] ‘그러나 이들이 총체적으로 작용해서 이루어지는 인간의 의식 세계는 저러한 두 가지 체계가 서로 분명하게 구별되지 않고 뒤엉켜 있다’를 통해 검증된 지식과 검증되지 않은 지식의 변별이 인간의 의식 세계에서는 명확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 ④ [X] ‘검증되지 않은 지식은 인간의 의식 공간에서 믿음의 체계를 구성한다’와 ‘믿음의 체계를 구성하는 데 사용된 지식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체계를 구성해 갖추고 있는 사람에게 그것은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지식이어야 하는 것이다.’를 통해 한 사람에게 사실로 인정되더라도 검증되지 않은 지식은 믿음의 체계를 구성함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의 체계를 구성하는 것은 검증된 지식입니다.